

보도 일시	2022. 11. 16.(수) 09:00	배포 일시	2022. 11. 16.(수)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정운재 (044-203-2441)
		담당자	사무관 이명환 (044-203-2444)

## ‘지스타 2022’ 안전 총력... 운영인력 2배, 관람 인원 제한

- 문체부 제1차관, 지스타조직위, 부산시, 경찰과 민관합동 사전 안전 점검 실시
-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으로 게임인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2(Game Show&Trade, All-Round)\*’와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2022 KOREA GAME AWARDS)’을 관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11월 16일(수) 오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지스타’ 현장 부산 벅스코(BEXCO)를 방문해 사전 안전 점검을 하고, 이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한다.

\*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

먼저 전병극 차관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스타’ 개막 전 대비 태세와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점검한다. 지스타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인 부산시(시장 박형준),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 전 차관은 ▲ 안전 인력 투입 및 배치 현황, ▲ 공간별 수용인원 및 밀집도 관리 계획, ▲ 참관객 포화, 응급환자 발생 등 상황별 대응 지침, ▲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 대응체계 등을 확인한다. 특히 부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부터 입장권 교환처를 거쳐 전시장까지의 일반 관람객 동선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8일(화)에도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해운대소방서, 해운대경찰서 등과 함께 ‘지스타’ 유관 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행사 이틀 전인 15일

(화)에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관이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행사 기간에도 문체부 실무 인력이 상주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11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진행되는 ‘지스타’는 대형 게임사가 대거 참가하고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현장 행사로 열리는 만큼 과거보다 2배에 가까운 운영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단위면적당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인근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는 기업 소비자 간 거래(BTC, Business To Customer) 관은 기존의 백스코 제1전시장과 더불어 백스코 제2전시장 3층까지로 확대해 인원 밀집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사전 안전 점검 이후, 전병극 차관은 여러 게임 시상식 중 유일한 정부 주최 행사인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2017년 대상(대통령상)], ‘로스트아크’[2019년 대상(대통령상)]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게임들이 거쳐 간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두각을 보인 게임을 시상하고 게임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번 ‘지스타’에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게임 축제를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표어인 ‘다시 한번 게임의 세상으로’(The Gaming Universe)에 걸맞게 게임인 여러분 모두가 게임의 세상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게임 친화 부처로서,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적인 여가 수단이자 주요 수출산업인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